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51 호 현대불교
2021년 8월 4일(음 6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5년

포괄적인 한마음은 우주 법계를 두루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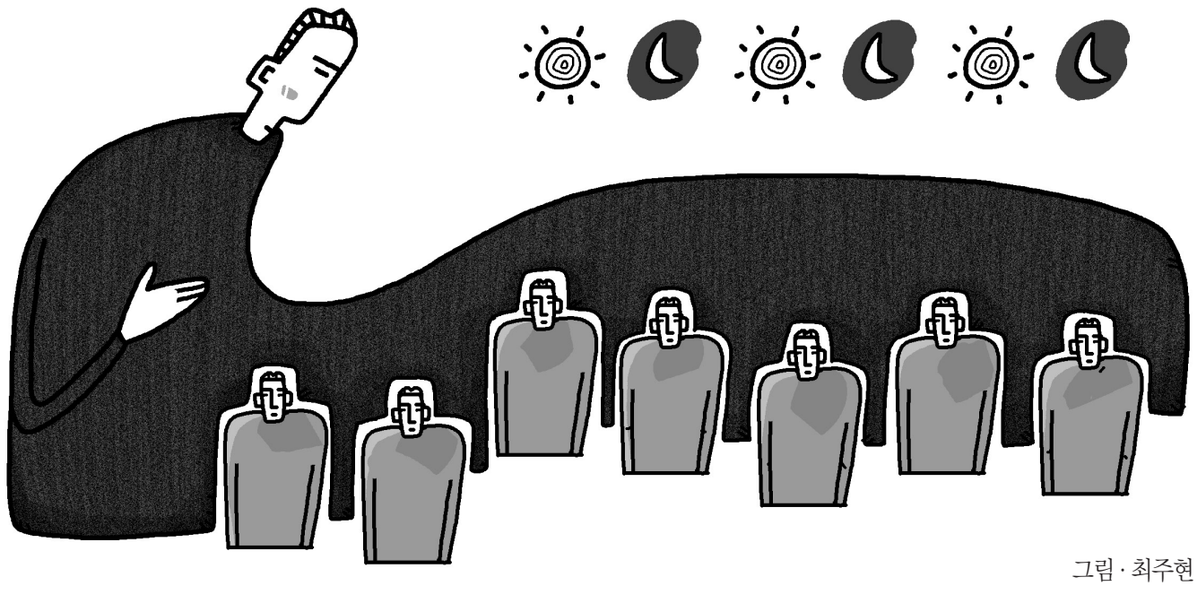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도량이 좁은 데다 더워서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생하면서도 이렇게 너가 있고 내가 있듯이, 헤어졌다가도 서로 한마당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법에 의해서 한마음이고 한도량이고 한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입산한 사람이든 유발 제자든 다, 생활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속에 천체 과학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곧 한마음 속의 보배이므로 그 보배 속에서 일체 만법이, 즉 말하자면 천문학이라든가 지리학이라든가 공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방출됩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팔자 운명도 없느니라. 너희들에게도 부처가 있느니라. 부처 있는 데 중생이 있고 중생 있는 데 부처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뚱이 속에 그 여러분이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사시고 계십니다. 거죽만 여러분인 줄 알지 마시고 여러분 모습 속에 또 여러분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많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건 왜냐고요? 여러분의 몸뚱이는 전자의 인연으로 인해서 인과로 인해서 뭉쳐진 것입니다. 지구라는 껍데기와 같이 여러분 몸뚱이도 혹성의 껍데기입니다. 지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인으로서 살고 있듯이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서도 소임을 맡아 가지고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천차만별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묘하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한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차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전부터 내가 말을 했죠. 인간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재료로 충만하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로 인해서 오신통이라는 자체가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현대 말로 한다면 큰 컴퓨터죠. 과거에 살던 모든 것, 인과의 인연이 된 그 모두가 거기 입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입력된 컴퓨터에서 전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컴퓨터를 큰 숙명통이라고 본다면 타심통이니 천이통이니 신족통이니 천안통이니 하는 것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한 부분으로만 있다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시스템이 항아리라면, 아니 팔 수레, 수레라고 한다면, 돌아가는 그 수레 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굴릴 수 있겠습니까? 항아리 속을 나와야 항아리를 굴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종합된 시스템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붙인 겁니다.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과로 인해서 유전성으로 인해서, 영계성으로 인해서 세균성으로 인해서 또는 그 모든 업보성으로 인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빈집이 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게 죄가 돼서 거기에서 지금 현실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다시 입력을 해 넣는다면 앞서 입력된 과거가 무너진다 이 소립니다.

덧붙여 또 한마디 튕겨 줘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수박이라면 과거 씨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과거 씨는 현재의 몸뚱이가 됐고 몸뚱이 속에는 바로 그 과거의 씨와 둘이 아닌 수박씨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를 또 심어서 또 먹이고 또 심어서 또 먹일 수 있는 겁니다. 끝 간 데 없는 그 모든 생명들을 기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지마는 부처님께서도 "밥 한 그릇 가지고 일체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밥 한 그릇이 되남았느니라." 하신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는 또다시 심어져서 또 수박을 열리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먹고 또 되남아서 또 먹고 또 되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진리도 그러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온 차원대로 입력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한테 팔자 운명이 있고 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붙을 자리가 없다 이 소립니다. 현재의 여러분이 과거를 짊어지고 나왔으니 지금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가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해 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첫째 가져야 합니다. 입력되어 있는 데에 다시 입력이 들어간다면 다 없어지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놓고 가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카세트테이프로 노래를 듣다가 거기에다 새로운 노래를 녹음시킨다면 앞서 넣은 노래는 없어지듯이 그건 사실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놓는 게 뭐냐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 한마디를 하죠. 용광로에 쇠를 넣었으면 나중에 재생되어 가는 거는 생각지 마셔야 합니다. 넣는 작업만 한다면 쇠는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죄지 죄가 어디 있으며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팔자나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또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세 번 죽어서 사람이 돼야만이 이런 인연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인연을 만나서 서로 자기 마음을 계발하면서 자기 마음이 오신통에서 벗어나고 마음에서 누진을 통해서 모두…. 누진은 지금 현재의 용어로 따진다면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됩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거, 바깥에서 오는 거를 다 책정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 불교를 왜 불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거기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이나 오하이오 주립 대학이나 또는 뭐, 나는 아까 얘기를 하고도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그런 대학에서 선생님들 32명이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여북하면 이 도리에 관한 논문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이나 박사 석사 이런 분들이 말을 하는데, 생물학에 있어서 진화론이라는 그 자체를 실질적으로 연구해 들어가다 보면 막히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이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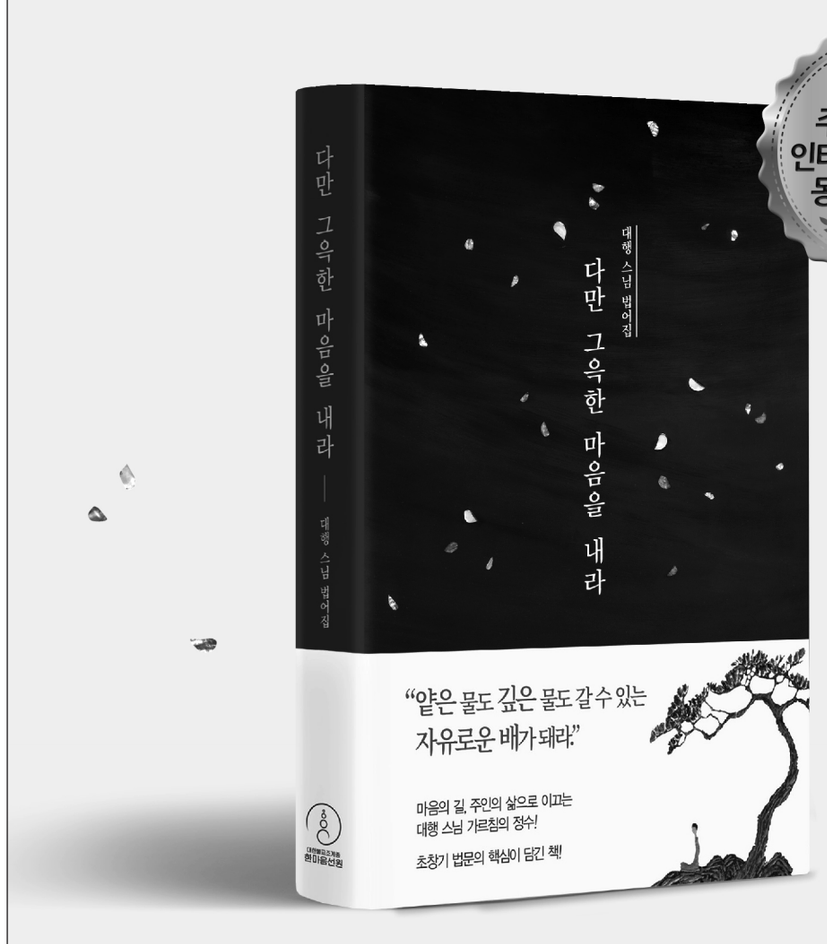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리가 터져서 마음대로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 태어난 거지 마음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마음의 영력, 정신력을 길러 재생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은 인간에게 그 묘한 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꼭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길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전체가 인간의 근본에 직결돼 있고, 모두가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할 수 있는 삶이 전부 가설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느냐. 2차원이면 2차원, 3차원이면 3차원, 4차원이면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이렇게 차원대로, 지금 현실의 내가 아는 대로 죽어도 그 의식이 그냥 남아서, 요다음 생에 다시 금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올 때도 그 차원을 가지고 그냥 나올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농촌에서는 논꼬를 보러 가는 일이 많죠. 어느 농부가 논꼬를 보러 가다 보니까 큰 뱀 하나가 쭉 늘어져 있어서 그것을 삽으로다가 자끈자끈 찍어서 죽였답니다. 그런데 그 뱀이 대가리가 잘라지니까 머리가 그냥 펄떡 뛰어서 삽으로 찍고 있는 사람의 가슴을 탁 치고 떨어지더니 그냥 꿈틀꿈틀하면서 죽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그 농부는 정신 이상이 돼서 20년쯤 살다가 그냥 죽었거든요.

그것이 옛날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당하

☞ 22면으로 계속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